

# 복수형(들)의 의미

강범모 (고려대학교)

## 1. 들어가며

많은 언어 속에서 양은 1 즉 단수와 그보다 많은 수인 복수로 구분이 된다. 대표적으로, 영어를 포함한 인구어에서 단수와 복수는 엄격히 구분되는데, 그것은 의미적 단수와 복수를 바탕으로 하지만 통사적으로도 엄격한 구분이다. 단수와 복수의 엄격함은 한국어에서는 약화되어 나타난다. 우선 복수 표지인 ‘들’은 복수의 개체에 대한 진술에서 의무적이지 않다.

- (1) ㄱ. 모든/많은/열 명의 소년이/소년들이 놀고 있다.
- ㄴ. 각/각각의 군인이/군인들이 손을 들었다.

이것들은 모두 의미상으로 복수의 개체에 관한 진술인데, ‘들’의 존재는 임의적이다. 그렇다면 복수적 상황에서 ‘들’의 유무는 복수성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강범모(Kang 1984)는 ‘한 명의 아이/\*아이들’, ‘많은 아이/아이들’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단수와 복수에 모두 쓰이는 무표형은 보이는 그대로 단수와 복수의 개체를 모두 지시할 수 있고 ‘들’ 복수형은 복수의 개체만을 지시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은 복수성에 관한 한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반하여 한국어 복수에 관한 근래의 연구들(임흥빈 2000, 백미현 2002, Kwak 2003, 전영철 2004 등)은 복수를 나타내는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찬착하였다.

이 논문은 여러 연구들에서 제기된,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차이에 대한 주장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와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들’의 의미적 기여가 무엇인지를 재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의와 분석의 기반이 되는 복수의 의미론을 배분성(distributiv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코퍼스에 나타난 ‘들’의 사용 양상을 살핌으로써 ‘들’의 의미 규명을 시도할 것이다. 논의를 위하여 사용할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만들어진 세종말뭉치이다.<sup>1)</sup>

## 2. 복수 의미론의 합(sum)과 집단(group)

Link(1983)는 복수의 누적적 속성이 물질의 누적적 속성과 동일함에 주목하여 두 영역을 모두 개체의 합(join) 세미라티스(semilattice) 구조로 파악하고 논리적 체계를 세웠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어떤 영역에 속하는 임의의 요소들의 개체합(sum)이 그 영역 속에 있게 된다. 복수의 의미론에서 ‘dog’과 같은 단수 명사는 개체들의 집합(dog')을 지시하며, 'dogs'와 같은 복수 명사는 개체들을 기반으로 하는 합 세미라티스(\*dog')와 관련된다.

복수 의미론은 다음과 같은 서술의 배분성(distributivity)과 집단성(collectivity) 현상의 분석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한다.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에서 허락한 연구년 기간(2005.9~2006.8) 동안 수행되었다.

1) 세종말뭉치는 1999년부터 시작된 21세기세종계획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국어 코퍼스이다(김홍규, 강범모 외 1999~2005).

- (2) ㄱ. The students smiled.  
 ㄴ. The students gathered.  
 ㄷ. The students carried a box.

배분적으로 해석되는 'smile' 같은 술어, 집단적으로 해석되는 'gather'와 같은 술어와는 달리 'carry-a-box' 같은 술어는 배분적 해석과 집단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의성은 술어구에 배분적 운용소 D를 설정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러나 Landman(1989)은 복수 술어 자체를 복수화하는 방법으로 배분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즉 배분적 술어 P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고 이것의 복수화 \*P는 자동적으로 배분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복수화가 배분성과 동일시되는 이 이론에서는 집단성을 단순한 개체의 합인 개체합(sum)이 외에, 독립적인 원자적 개체인 집단(group)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설명한다. 집단적 술어는 집단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 혼합 술어('carry-a-box')는 보통의 개체와 집단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그리고 집단을 인정하는 한 하나의 복수 명사구는 개체합뿐 아니라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the student'는 어떤 개체합 x를 지시할 수도 있고, 그에 대응하는 집단  $\uparrow x$ 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Link와 Ladman이 사용한 집단 형성 운용소임). 따라서 배분적 술어와 집단적 술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논리식으로 표현된다.

- (3) ㄱ. The students smiled.  
 $\Rightarrow *smile(\sigma x.*student'(x))$   
 ㄴ. The students gathered.  
 $\Rightarrow gather'(\uparrow \sigma x.*student'(x))$

영어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에도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배분성/집단성의 차이가 술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5) ㄱ. 그 아이들이 물을 마셨다.  
 ㄴ. 그 아이들이 모였다.  
 ㄷ. 그 아이들이 상자를 운반하였다.

이제 이러한 복수 의미론을 배경으로 한국어의 두 가지 복수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3. 한국어의 복수형(들)과 배분성/집단성

한국어는 '들' 복수형이 있지만, 영어와 달리 '들' 붙지 않는 무표형으로 단수와 복수를 나타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근래의 연구들은 '들'이 개별화 혹은 개체화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sup>2)</sup> 이 개별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개체를 분리해서 파악함을 의미하므로 복수의 개념과 밀접한 개념이다. '들'이 없는 복수형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개별화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표 복수형에 존재하지 않는, '들' 복수형에만 존재하는 개별화가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야 한다.

2) '들'의 개별화 혹은 개체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이러한 개별화의 구체적 실체로서 앞의 여러 연구들은 개별화를 배분성과 관련시킨다. 즉, ‘들’ 이 개체 하나하나를 개별화하여 드러내는 이상 그것이 배분성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의 가장 명시적인 형식이 콰은주(Kwak 2003)와 전영철(2004)에서 나타난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어의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은 모두 복수를 나타내지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상, 즉 Link와 Landman이 상정하였던, 집단(group)과 개체합(sum)을 각각 가리킨다는 것이다. 개체합은 개체를 모아놓은 것이지만 집단은 개체의 모임 이상의 독립적 원자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별성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이 맞는다면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적 차이는 논리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하지만 그 분석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본 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분석과 주장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배분적 의미를 갖는 문장들이다. (단수와 복수 문제로 올바른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를 ‘#’ 로 표시한다.)

- (6) ㄱ. 학생들이/#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 ㄴ. 엄마가 아이들에게/#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배분성을 표현하는 ‘각자’ 와 ‘씩’ 은 ‘들’ 복수형과만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들’ 복수형은 배분성과 관련된 개체합을 지시하고, 무표 복수형은 배분성을 가질 수 없는 집단을 지시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각자’ 와 ‘씩’ 이 ‘들’ 복수형과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라는 점이다. 위의 문장들에서 무표 복수형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사 앞에 ‘우리반’ , ‘자기’ 같은 표현을 넣으면 좀더 자연스러워진다.

- (7) ㄱ. 우리반 학생들이/?학생이 (돌아가면서)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 ㄴ. 엄마가 좌우의 자기 아이들에게/?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표현들이 실제 언어 사용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세종말뭉치).

- (8) ㄱ.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는 학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 연구의 방법을 바로잡고자 한다.
- 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또 바쁜 사람 위해서 커피도 끓여주고...
- ㄷ. 30리 떨어진 수덕사 소풍길도 전교생이 [각자] 먹을 쌀을 싸메고 걸어갔다.
- ㄹ.그새에 나는 맥주가 많이 생겼다고 박물관 [직원에게 한 병 반씩] 나누어 먹이고 나서 한 병도 남은 것이 없어 웃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문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각자’ 와 ‘씩’ 이 무표 복수형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나타낸다는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표형과 한정성의 관계를 고려할 때 드러난다.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 모두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한정적 지정사인 ‘이, 그, 저’ 와 결합하면 대개 단수로 해석된다. 여러 명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그 학생’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상하다.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임흥빈 2000, 전영철 2004) 이러한 용법은 상당히 주변적이다. 무표형이 관사가 없이 쓰일 경우 이것은 한정적 또는 비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9) ㄱ. 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비한정적)  
 ㄴ. (어떤 학생에 대하여 말하다가) 내가 학생을 만나겠어. (한정적)

전영철이 보이듯이, 비한정적 해석과 한정적 해석은 발화의 맥락과 음성적 초점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정적인 경우에만 국한하여 말하자면, 한정적 무표형은, 지시관형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그 학생’)와 같이,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언어 표현의 무표형과 유표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다. 즉 무표형이 단수와 복수를 모두 표시할 수 있지만, (특히 한정적 상황에서)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복수형을 쓰는 것이 좀더 분명할 것이고, 따라서 ‘들’ 복수형을 쓰지 않고 무표형을 썼다는 것은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화용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만일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무표형을 썼다면 그것은 복수형으로 좀더 충분한 양의 정보를 주지 않았으므로 Grice의 양의 격률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자가 복수가 아닌 단수를 표현하기 위해 단수형을 썼을 것이라는 함축이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무표 복수형 및 ‘들’ 복수형과 배분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각자’나 ‘씩’과 연결된 ‘학생’이나 ‘아이’라는 무표형이 한정적으로 제시될 때 그것은 단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복수가 전제되는 배분성의 개념이 이 단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지시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10) ㄱ. #그 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ㄴ. #엄마가 그 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무표형이 대개 단수로 해석되는 것이 화용적인 현상인 이상, 맥락에 따라서 무표형이 복수로 해석된다면 배분적 ‘각자’와 ‘씩’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들릴 것이다. 즉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풍선을 주었다’의 ‘아이’가 복수를 나타낸다고 받아들이면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성은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결론은 무표형이 명백한 복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배분적 해석이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앞의 실제 사용 예에서 쓰인 ‘모든 사람’, ‘전교생’과 같은 표현들은 관형사로써 복수성이 표시되거나 혹은 명사의 의미 자체에 복수성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배분성을 요구하는 ‘각자’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다음의 예와 같이 복수 해석을 해야 하는 다른 여러 가지 형식 속의 무표형 복수 명사구도 ‘각자’와 함께 쓰이는데 문제가 없다.

- (11) ㄱ. 많은/여러/몇몇 학생이 각자 떠났다.  
 ㄴ. 여러/다섯/십여 명의 학생이 각자 떠났다.

지금까지 배분성의 문제를 ‘각자’ 혹은 ‘씩’이라는, 명시적으로 배분성을 요구하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배분성은 이러한 요소가 없이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복수성과 관련하여 배분성을 논의할 때 배분성 및 집단성은 술어의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 ‘각자’와 같은 표현 없이도 배분적 술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웃다’와 ‘죽다’와 같은 술어들은 무표 복수형과 결합하든 ‘들’ 복수형과 결합하든 배분적이다.

이제부터 ‘각자’와 같이 배분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요소가 없더라도 술어만으로도 배분적 해석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자. 다음은 코퍼스에 나타난 실제 언어 사용에서, 분명 배분적 해석이라고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과 함께) 무표 복수형이

쓰인 것들이다.

- (12) ㄱ.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옛날보다 [많은] 사람이 감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 ㄴ.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많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
- ㄷ. 목 없는 나상(裸像) 두 개를 세워두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다.
- ㄹ. 각종 외국어 습득기간으로 최적기이며,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 최후의 기회이기도 하다.

작품의 감상과 감정은 개별적인 것이며 눈길을 끄는 것도 개개인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콰은주(Kwak 2003)는 ‘많은 학생’ 이 ‘각자’ 와 같이 쓰일 수 있음을 밝히면서 ‘많은 학생’ 이 배분적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관형사 없는 ‘학생’ 의 경우에만 ‘각자’ 가 쓰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대신 그 자리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집단 형성 한정어 ‘Gr’을 상정한다. 말하자면 (한정어 없는)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나타내고 배분적일 수 없는 이유를 명사 자체보다는 보이지 않는 한정어 ‘Gr’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이듯이 한정어 없는 무표 복수형도 복수로 인식되면 배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분석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무표 복수형 앞에 다른 한정사가 없을 때 집단 형성의 ‘Gr’이 있을 수 있다면 ‘들’ 복수형 앞에도 다른 한정사가 없으면 ‘Gr’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들’ 복수형도 집단을 나타내고 이때 ‘각자’ 와는 공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며 무표형 복수는 집단을, ‘들’ 복수형은 개체함을 지시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집단 해석이 ‘Gr’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많은, 모든’ 등 다른 한정사가 쓰일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러한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배분성을 논의하면서도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배분성의 이면인 집단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실제로 Landman(1989)의 복수 의미론에서 개체함과 집단의 차이는 배분성과 집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했음을 상기할 때, 콰은주와 전영철의 논의에서 주로 배분성만이 언급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나타내고 ‘들’ 복수형이 개체함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적어도 Landman의 복수 의미론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무표 복수형은 집단적으로만 쓰이고(따라서 배분성이 불가능하고) ‘들’ 복수형은 배분적으로만 쓰인다는(따라서 집단성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함의한다. 무표 복수형이 배분적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은 앞에서 보였고, 여기서는 그 다른 이면 즉 ‘들’ 복수형이 집단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한 것 같다. ‘들’ 복수형이 ‘모이다’ 등 집단적 술어들과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 (13) ㄱ. 아이들이 모였다
- 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한다.

‘많은 사람들’ 과 같이 양이 표시된 경우에도 집단적 술어의 사용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들’ 복수형이 분명 집단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이며 따라서 집단(group)과 집단성(collectivity)을 관련시키는 Landman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설명 방식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집단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들’ 복수형의 비집단성(개별성)을 주장하는 모든 설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 이 집단적 술어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 같은 무표 복수형도 집단적 술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지금까지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을 집단성과 배분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어의 복수에 관한 많은 논의가

‘들’을 개별성과 관련시키고 개별성을 배분성과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일시하여 왔으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들’의 개별성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다만 ‘들’의 개별성을 배분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 개별성, 구별성, 복수성

앞에서 임홍빈(2000) 등 ‘들’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들’의 의미특성을 개별성 혹은 개체성으로 파악했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성이란 복수의 개체들을 각각의 개체들로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개체 전체를 그것을 구성하는 개체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는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개별성을 집단성(collectivity)과 대립되는 배분성(distributivity)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렇게 개별성과 배분성을 동일시하는 관점의 문제점들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개별성과 배분성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이 ‘들’의 개별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들’은 분명히 개체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임은 물질명사에 ‘들’이 붙는 특수한 경우에도 드러난다. 여기 저기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물들’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각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에서도 커피 두 잔을 시키면서 ‘two coffe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물질명사에 적용할 수 있어서 ‘보편적인 묶기’(universal packag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Schubert and Pelletier 1987). 이때 영어의 물질명사가 결합하는 ‘-s’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말하자면 물질명사의 ‘묶기’는 개체를 구별하여 개별성을 인식이며 그것이 바로 복수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개체를 구별하는 구별성은 곧 개체의 개별성이며 그것은 바로 복수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들’이 개별성은 나타낸다면 그것은 바로 ‘들’의 복수성과 같은 것이다.

#### (14) 개별성 = 구별성 = 복수성

문제는 한국어에 ‘들’복수형이 있을 뿐 아니라 무표 복수형이 있다는 것이다. 무표 복수형도 복수를 나타내는 이상 복수성이 개별성이라면 무표 복수형도 개별성을 가져야 하고 ‘들’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은 차이가 없어야 한다. 실제로 앞에서 적어도 배분성과 집단성에 관한 한, 근래 몇몇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두 가지 복수형의 차이가 없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인식해온 바와 같이, 그리고 강범모(2006)복수형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무표 복수형과 ‘들’복수형의 사용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강범모(2006)의 코퍼스 조사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정확한 수보다 모호한 수에서 ‘들’복수형이 더 잘 쓰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 명의 사람들’ 보다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모호한 수의 경우 개별적인 인식이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들’의 개별성과 모순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임홍빈(2000)과 백미현(2002)이 수량 표현에서 ‘들’의 쓰임이 제약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에 앞서 ‘두 명의 아이/아이들’과 같은 수분류사 구문뿐 아니라 ‘두 아이/아이들’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와 결합하는 것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미현(2002), Kwak(2003)은 이러한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Kang(1994), 임홍빈(2000), 전영철(2004)에서는 그러한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1000만 어절의 세종말뭉치에서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두 노인들, 두 젊은이들’ 등 ‘두’와 함께 쓰이는 예가 100개

정도 나타나므로 그 가능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17) 두 - 강대국들, 계집아이들, 교사들, 귀들, 나라업자들, 낚시꾼들, 남동생들, 년놈들, 노인들, 노인들, 놈들, 도둑들, ...

그렇다 하더라도 수량 표현에서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임흥빈(2000)은 “셈을 셀 때 개별적인 대상의 차이는 무시되기 쉽다”고 함으로써 ‘들’의 구별성 및 개별성이 이러한 현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들’복수형이 모호한 수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사실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모호한 수에서는 구별성과 개별성이 더 떨어지거나 혹은 개별성의 대상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면에서 정확한 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미현(2002)의 설명 방식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 백미현(2002)은 ‘두 사람들’과 같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이러한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시도한다.

- (18) “한국어에서 수사가 “비한정 명사구(예: ‘사람’)에 해당하는 집단을 셀 수 있는 여러 단위로 해체시켜 일종의 개별성을 발생시키므로(예: ‘두 사람’), 여기에 다시 덩어리 단위의 해체를 의미하는 표지를 첨가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잉여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들’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주장은 분명 사실과 어긋나지만, 수량 표현이 ‘들’과 잘 쓰이지 않음을 ‘들’의 개별화가 의미적 잉여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설명 방식은 설득력이 있다. 그것은 모호한 수의 경우 그것이 개별화, 개체화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들’이 그 역할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 말하자면 모호한 수와 ‘들’복수형이 상대적으로 잘 쓰이고, 정확한 수와 무표 복수형이 잘 쓰이는 이유를 ‘들’의 개별화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들’이 수량 표현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보다는 모호한 수와 더 잘 쓰인다는 사실을 ‘들’의 개별성이 모두 설명해 준다.

여기서 ‘들’의 개별성이 배분성과는 상관이 없고 ‘들’의 개별성은 바로 ‘들’의 복수성이라 점을 다시 상기하자. 그렇다면 ‘들’복수형이 무표 복수형보다 더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들’복수형이 무표 복수형보다 더 “복수적”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나의 주장은 덜 복수적인 것(무표 복수형)과 더 복수적인 것(‘들’복수형)의 차이는 바로 무표(unmarked)와 유표(marked)의 차이이라는 것이다.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나타낼 수 있지만 ‘들’복수형은 복수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더 복수적이다.

무표형과 유표형이 있을 경우 유표형이 더 정보적이다. 유표형이 표현하는 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무표형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더라도 충분히 정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협동적인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이 쓰이는 다른 표현들이 그 정보를 보충해 준다면 무표형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무표형의 사용으로도 충분하다. 수의 경우에도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표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복수임이 다른 표현으로 드러난다면 무표형으로도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수량 표현과 같이 쓰일 경우에는 수량 자체에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므로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 무표형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17) ㄱ. 세/많은 학생  
ㄴ. 학생 열 명  
ㄷ. 학생이 많다.

그러나 수량 표현이 없이, 즉 복수임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 없이 명사만 사용될 경우 실제로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들’ 복수형을 사용하여야 충분히 정보적이다. 따라서 화자가 무표형을 사용할 경우, 청자는 화자가 무표형으로 단수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대화상의 함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함축은 강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18) 아이가 놀고 있다. 좀더 명확히 말하자면 아이 여러 명이 놀고 있다.

‘그 학생’ 이나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학생’ 이 단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학생’ 의 경우는 거의 문법화 되어 있다. 한정사 없이 쓰이는 무표형도 단수형으로의 해석 경향이 강함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이라는 영화 제목이 보여 준다. 영화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물고기가 여러 마리 나타난다.

## 5.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어의 복수 의미론을 복수 표지 ‘들’ 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에 관하여 이전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코퍼스 자료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을 비교할 때, ‘들’ 의 개별화 특성을 바탕으로 ‘들’ 복수형이 배분적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들’ 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의 차이는 배분성과 집단성의 차이는 아니다.

둘째, ‘들’ 의 개별성은 복수성과 같은 것이다. ‘들’ 복수형이 무표 복수형과 다른 것은 그 개별성(복수성)이 유표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복수형의 표면적 차이(적절성, 자연성의 정도)는 유표성(markedness)을 고려하여 화용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복수성이 관심이 되는 상황에서, 수량 표현 등 복수성이 예측되는 맥락에서는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무표형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예: ‘열 명의 학생’), 그렇지 않은 맥락에서는 무표형이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예: ‘그 사람’).

## 참고문헌

- 강범모 (2006) “복수성과 복수 표지,” 준비중.
- 강범모, 김홍규 (2004) 한국어 형태소 및 어휘 사용 빈도의 분석 2,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김홍규, 강범모 외 (1999~2005) 21세기 세종계획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 의 사건성,” 애산학보 24, 3 - 50.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 - 45.
- Carlson, G. and F.J. Pelleiter (eds.) (1995) *The Generic Boo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ng, Beom-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i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 - 24.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in Korean,” in *Journal of the LSK (언어학)* 35, 3 - 36.
- Landman, Fred (1989) 'Groups, I, II',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 - 605, 723 - 44.



- Lasersohn, Peter (1995) *Plurality, Conjunction and Events*, Dordrecht: Kluwer.
- Link, Godehard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theoretical Approach', in R. Bä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Berlin: de Gruyter, 302 - 323.
- Schubert, Lenhart K. and Francis J. Pelletier (1987) "Problems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Logical Form of Generics, Plurals, and Mass Nouns", in E. LePore (ed.) *New Directions in Semantics*, New York: Academic Publishers, 385 - 451.
- Schwarzchild, Roger (1996) *Pluralitie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